

인도어 사본 연구 현황과 과제: 국내학계를 중심으로* **

이영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tatpum@gmail.com

I. 국내 학계의 연구현황

III. 이제는 시스템으로

II.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요약문

1820년대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사본을 기점으로 출발했던 인도어 사본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에서 출토된 간다리 사본, 그리고 티벳/자치구에 보관되어 있던 산스크리트 사본의 일부 공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불교학의 지형을 바꾸었고 바꾸고 있고 바꿀 이러한 사본연구는 유럽과 일본을 위시로 한 소위 불교학 선진국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의 상황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아직 이십년이 되지 않은 국내의 인도어 사본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1장에서는 불교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던 인도어 사본 연구의 1세대와 전문적인 사본 연구 집

* 이 논문은 “천년을 이어온 불교기록문화에 대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9년 1월 25일 금강대 학교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2018년도 겨울 워크숍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논문을 위해 연구 성과와 계획 그리고 사본 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방정란 선생님, 운산 스님, 최진경 선생님, 혜용 스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단으로 대표되는 2세대로 나누어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다루었다. 또한 1세대와 2세대의 중간 기점에는 ‘올너 필사본의 카탈로그 작성 및 DB구축 사업’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자생(自生)적인 연구자를 길러내고 이후 후속세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학계에서 사본 연구를 정착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사본 연구와 인도/불교 사상의 연구는 완전히 별개이다”는 선입견에 반하는 예를 『십지경』 사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3장에서는 인도어 사본 연구를 인도/불교학의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제안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인도어 사본 연구를 ‘개인 연구자’ 위주에서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비로소 인도어 사본 연구가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인도어,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 현황, 사본 연구와 사상의 관계, 학문 분야, 시스템화

I. 국내 학계의 연구현황

1800년대에 시작되었던 인도어 사본연구는¹⁾ 200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해외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을 통해 국내학계에 도입된다. 인도어 사본연구의 제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군에는 최종남, 안성두, 이용현, 이종철, 우제선 등 현재까지도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불교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

-
- 1) 해외 학계의 인도어 사본의 연구사와 현황에 관한 개론으로는 이영진,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인도철학』 제42집(서울: 인도철학회, 2014), pp.319-356을 참조할 것. 이외에도 국내에서 출판된 인도어 사본 연구사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정진일, 「한역중아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간염들—조사 현황과 전망—」, 『인도철학』 제30집(서울: 인도철학회, 2010), pp. 5-18; Choi, Jin kyoung, “The *Tridaṇḍī-sūtra* and the two *Lohitya-sūtra* in the Gilgit *Dirghāgama manuscript*”, *CRBS Vol.12*(Nonsan: GCBS, 2012), pp.9-36; 방정란,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인도학, 티벳학 사본 연구 현황 소개」, 『불교학리뷰』 14권(논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13), pp.107-122; 강대공(법진 스님), 「동남아시아의 팔리어(Pāli) 문자와 불교사본」, 『인도철학』 제42집(서울: 인도철학회, 2014), pp.357-380; 배경아, 「한국·동아시아 불교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불교학의 연구방법론: 불교인식론논리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6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pp.101-126.

는 학자들이 포함된다.

이 군은 주로 산스크리트로 쓰인 불교사본을 연구하며, 사본에 전념하기보다는 철학과 사상, 한문 문헌과 티벳역에 대한 문헌학적인 작업 등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학자군의 대표적 연구 성과를 출판연도에 따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²⁾

1. 최종남: ① 박사학위 논문(1998년)의 출판본(2001년)³⁾에서 『성문지』 산스크리트 사본 중 제 1·2·4 유가처의 일부 단락을 편집.⁴⁾ ② 이중 ‘śīlasamvara’(戒律儀)에 해당하는 부분(MS 12r2-13v4)의 비판적 편집본과 한글 번역을 2001년 발표.⁵⁾
2. 안성두: ① 박사학위 논문(2001년)의 출판본(2003년)에서 『유가사지론』 산스크리트 사본 중 번뇌잡염(煩惱雜染 kleśasamkleśa) 장(44r5-46v6)과 이에 대응하는 티벳역을 함께 편집.⁶⁾ ② 2008년 ‘올너사본 프로젝트’(후술)와 관련하여 샘플링을 비롯한 사본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콜렉션에서 유일한 불교사본(Āryakāraṇḍavyūha 『大乘莊嚴寶王經』)을 소개.⁷⁾
3. 이용현: ① 2004년 불교 도상학(圖像學)의 중요한 자료중 하나인 아바야까라굽따(Abhayakāragupta)의 『니쉬빠나요가발리』

2)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연구자정보’(<https://www.kri.go.kr/kri2>)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의 검색을 통해 찾았다. 따라서 이 두 사이트에 누락되어 있는 연구 성과는 대부분 반영하지 못했다.

3) Choi, Jong-Nam, *Die dreifache Schulung (Śikṣā) im frühen Yogācāra: Der 7. Band des Hsien-yang shêng-chiao lun*(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11)

4) 제2유가처와 제4유가처에 대한 최종남의 편집은 이후 다이쇼대 성문지연구회(2007년)의 제2유가처, 텔리아누(2007년)의 제4유가처의 편집본에 반영되었지만, 제1유가처의 읽기는 제1유가처에 대한 다이쇼대 성문지연구회(1998년) 편집본에 반영되지 않았다.

5) 최종남, 『『유가사지론』 『성문지』 산스크리트로 원전연구: śīlasamvara (戒律儀)』, 『대각사상』 제4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1), pp.379-404.

6) Ahn, Sung-Doo, *Die Lehre von den Kleśas in der Yogācārabhūmi*(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3), pp.56-87.

7) 안성두, 『올너사본의 현황조사와 샘플링 작업』, 『인도철학』 제25집(서울: 인도철학회, 2008), pp.175-214.

(Niṣpannayogāvalī)를 5종의 산스크리트 사본과 3종의 티벳역을 사용하여 편집 출판.⁸⁾ ② 2007년 ①중 일부분의 편집(?)과 이에 대한 영어번역 발표.⁹⁾ ③ 2007년과 2008년에 ①의 편집과 관련한 사항을 다룬 논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¹⁰⁾

4. 이종철: 2005년 『구사론』 「파아품」을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본을 바탕으로 ‘산스크리트 사본 전사(轉寫)—산스크리트와 티벳역 편집’의 순서로 출판.¹¹⁾
5. 우제선: 2006년 즈냐나슈리트라(Jñānaśrīmitra)의 『유가사결정론』(Yoginirmayaprakaraṇa)에 대한 비판적 정판본(critical edition?) 출판.¹²⁾

이 연구자들 이외에도 해외에서 유학 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로 정진일과 김지나를 뽑을 수 있다. 이중 정진일은 2017년 대단원의 막을 내린 『투르판에서 발견된 불교문헌의 산스크리트 사전』(Sanskrit-Wörterbuch der buddhistischen Texte aus den Turfan-Funden)에 1996년부터 참여하였고 2009년 이후로 편집자(redactor)로 활동하였다. 이 이외에도 초기불교 산스크리트 문헌에 대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본전문가로서 현

8) Lee, Yong-Hyun, *The Niṣpannayogāvalī by Abhayākara Gupta: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Text*, Revised Edition (Seoul: Baegun Press, 2004)

9) Lee, Yong-Hyun, “The Kalacakramandala in Abhayakaragupta's *Niṣpannayogāvalī*: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Text and an 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49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007), pp.51-90.

10) 이용현, 『「니쉬빠나요가발리」의 산스크리트 텍스트에 관한 고찰』, 『인도연구』 제12권 2호 (아산: 한국인도학회, 2007), pp.225-251 ; Lee, Yong-Hyun, “Re-editing the *Niṣpannayogāvalī*: Some Textual Problems”, *Tantric Studies* Vol.1 (Hamburg: Centre for Tantric Studies,), pp.181-192.

11) Lee, Jong Cheol,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Chapter IX: Ātmavādapratīṣedha*,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11 (Tokyo: Sankibo Press, 2005) ; 산스크리트 문헌의 비판적 편집의 각주 (critical apparatus)에는 (Ejima:)와 (Lee:)의 기호가 보이는데, 이 중 후자는 편집자, 전자는 그의 스승인 Ejima, Yasunori (江島惠教)의 “Textcritical Remarks of the Ninth Chapter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Journal of Buddhist Culture* 『仏教文化』 Vol.20 (東京: 東京大学仏教青年会, 1987), pp.1-40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의 교정을 의미한다.

12) 우제선, 『요가행자의 증지: Yogipratyakṣa』 (서울: 무우수, 2006), pp.78-125.

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학계에 도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¹³⁾ 김지나는 대승불교의 경전승배(book cult)를 다양한 『팔천송반야경』 사본의 도상(圖像)을 통해 미술사적으로 접근한 기념비적인 작업을 출판하였으며,¹⁴⁾ 국내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2010년대에는 2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나타나는데, 그 기점으로는 ‘울너 프로젝트’ 정확히 ‘울너 필사본의 카탈로그 작성 및 DB구축 사업’을 뽑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의 연구원으로 있던 강성용¹⁵⁾의 소개로, 비엔나대학과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2007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파키스탄 라호르의 편잡 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소위 울너 콜렉션)에 대한 촬영과 카탈로그 작성을 수행한 작업이다.¹⁶⁾ 이 프로젝트는 산스크리트 필사본 연구에서 국내 자생(自生) 연구자를 최초로 길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영길과 심재관이다. 박영길은 울너 콜렉션에 나타난 『하타쁘라디빠까』(Haṭhāpradīpikā) 5종의 사본을 활용하여 현재 통용되는 “하타요가쁘디빠까”(Haṭhayogapradīpikā)의 제명이 ‘하타쁘라디빠까’임을 밝히고, 2013년의 저서에서 이 5종 이외에 울너 콜렉션의 11종류의 요가 사본을 이용하는 등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¹⁷⁾ 심재관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인도어 사본 전반에 관한 개론서를 출간하

13) 정진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4학기)동안 능인불교대학원대학에서 교수직을 겸하였고, 한국의 불교학회지에도 다수의 논문을 투고하였다. 2010년 이후의 저술과 학국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관해서는 참고문헌의 Chung, Jin-il과 Chung, Jin-il & Fukita와 정진일의 목록을 참조하시오.

14) Kim, Jinah, *Receptacle of the Sacred: Illustrated Manuscripts and the Buddhist book cult in South Asi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15) 강성용 또한 국내에 산스크리트 사본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Kang, Sung Yong, “The New Critical Edition of the Nyāyabhāṣya and Its Meaning for the Research in Early Buddhist Debate Tradition-The Case of *jāti* and 相應”, *CRBS* Vol.3 (Nonsan: GCBS, 2008), pp.39-85 ; 강성용, 「고전텍스트의 DNA를 묻는다: 고전텍스트의 문헌전승 계통도 분석에서 계통발생 분석방법(phylogenetical analysis)의 적용과 모색」, 『인문언어』 제15권 3호(서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3), pp..77-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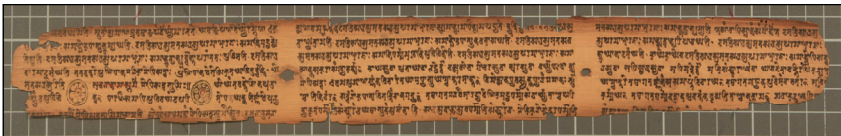
16) 프로젝트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카탈로그로 나왔다. Choi, Gi-pyo et al., *A Handlist of Sanskrit Manuscripts in the Punjab University Library: Vol. 1 [Veda, Vedālakṣaṇa, Upaniṣad, Śrauta, Gṛhya, Dharma]*(Nonsan: GCBS, 2011)

17) 차례대로 박영길, 『하타요가쁘라디빠까』(Haṭhayogapradīpikā) 필사본의 명칭—필사본과 카탈

였고, 사본의 문자에 관한 논문도 출판하였다.¹⁸⁾

올너 프로젝트는 당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던 이영진, 방정란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과 독일에서 불교사본을 연구하는 최진경은 제1세대와는 달리 사본을 중심으로 인도불교와 사상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사본연구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이영진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2009년부터 1년 반 남짓한 박사후연구과정을 마친 후 2011년 귀국하여, 2019년 1월 현재까지 사본과 관련하여 총 22편(3권의 단독/공동저서+19편의 논문¹⁹⁾)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였다. 대표작으로는 2017년 이탈리아에서 출판한, 6세기 인도불교 논사인 성자 비묵띠세나의 『현관장엄주석』(Abhisamayālaṅkāśāstra) 첫 번째 장(Abhisamaya)에 대한 비판 편집본이 있다.²⁰⁾ 현재는 ‘『유가사지론』 「사소성지」의 비판적 편집과 한국어 번역’ 공동 프로젝트(후술)에서 산스크리트 편집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7세기와 13세기 『십지경』 사본과 경전부(mdo sde) 소속의 『십지경』 티벳역을 중심으로 한 “산문 리셴션 『십지경』”을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진 1〉 7세기 『십지경』의 40번째 폴리오 앞면: 제8지의 섹션 콜로폰이 있음

록 그리고 표준적 명칭에 대하여—, 『불교학리뷰』 6호(논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9); 박영길, 『하타요가의 철학과 수행론』(서울: 씨아이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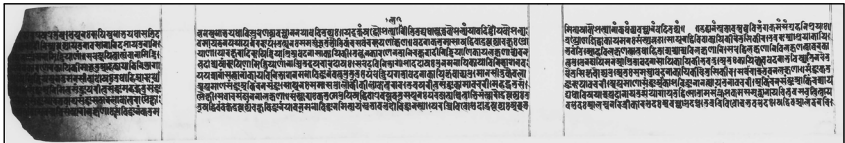
18) 심재관, 『인도 사본학 개론』(서울: 씨아이알, 2013); 심재관, 「네팔 후기 리차비(Late Licchavi) 문자 형태에 대한 연구—7~9세기의 비문과 필사본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50집(서울: 인도철학회, 2017), pp.5-48.

19) 공동저서 2권과 직접적으로 사본 편집에 관련한 논문에 관해서는 참고문헌의 Karashima, Seishi, et al.과 Lee, Youngjin과 이영진의 목록을 참조하시오.

20) Lee, Youngjin, *Critical Edition of the First Abhisamayā of the Commentary on the Prajñāpāramitā Sūtra in 25,000 Lines by Ārya-Vimuktiṣeṇa, based on Two Sanskrit Manuscripts preserved in Nepal and Tibet* (Napoli: Università degli Studi di Napoli "L'Orientale", 2017).

최진경은 수행했던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한역과 티벳역으로만 전해지거나 혹은 이 두 전통에도 전혀 전해지지 않은 문헌을 최초로 다룬다는 점에서, 세계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다. 2016년에는 독일 뮌헨대학에서 “Three Sūtras from the Gilgit *Dīrghāgama* Manuscript”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녀는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설일체유부의 장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8세기 후반) 가운데 세 경전을²¹⁾ 편집 번역하고, 이를 팔리어, 한역, 티벳역과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설일체유부 장아함경의 독자적인 특징을 부각시켜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2021년 ‘Wisdom Publications’에서 출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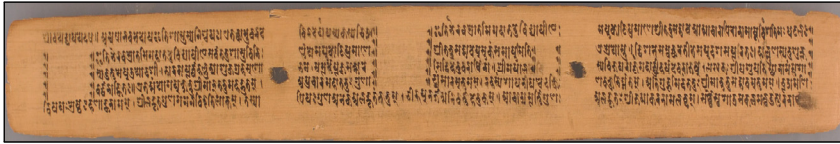
2016년부터는 독일연구재단(DFG)의 지원을 받아서 아직까지 편집된 적이 없는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의 일부²²⁾와 한역과 티벳역에도 남아있지 않은 「섭결택분」에 대한 주석서 단편을 연구하면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²³⁾



〈사진 2〉 상트페테스부르크 「섭결택분」 사본 17번째 폴리오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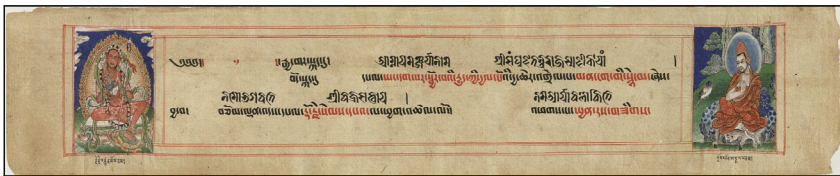
- 21) Dirghāgama (DĀ) 25 Tridandīn, DĀ 27-28 Lohitya I & II로, 이 세 사본에 대한 정보와 「장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Choi, Jin kyoung, *op. cit.*를 참조하십시오.
- 22)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상트페테스부르크에 보관되어 있는 11~12세기의 「섭결택분」 12폴리오(13~24 폴리오: 25~122 폴리오는 원본은 라사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 출판한 이에 대한 컬러 사진본은 현재까지 접근 불가), 네팔 카드만두에 보관되어 있는 「섭결택분」 사본 1 폴리오와 「섭이문분」 1 폴리오, 2012년 예사룡에 의해 발견된 티벳에 보관되어 있는 「섭결택분」 사본 2 폴리오와 한역과 티벳역에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섭결택분 주석서 1 폴리오에 대한 편집 번역과 대조를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본 정보에 관해서는 Choi, Jinkyong, “A Brief Survey on the Sanskrit Fragments of the *Viniścayasamgrahaṇī*”, *INDIAN LOGIC: In Honour of Professor Matsuda Kazunobu on His Sixtieth Birthday* (Tokyo: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dian Logic, 2017), pp.304-318를 참조할 것.
- 23) 참고문헌의 Choi, Jin-kyoung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방정란은 함부르크 대학의 “사본 문화 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Manuscript Cultures)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2018년 11세기 네팔의 샤이버(Śaiva) 산스크리트 사본들에 기반한 ‘Tantrasadbhāva’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²⁴⁾



〈사진 3〉 Tantrasadbhāva NGMPP A 44/2(1097년 필사) 마지막 폴리오(콜로폰 포함)

현재는 로버트 호 재단의 박사후과정 연구 장학금을 받아 “인도 전통과의 동질화 과정을 통해 발전한 불교 탄트라형성”이란 주제로 불교 삼바라 전통의 문헌들에 대한 비판 교정본 작업과 번역을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²⁵⁾ 또한 아바야카라굽타가 저술한 ‘Āmnāyamañjarī’ 13-15장을 편집하고 있는데, 이 사본은 산스크리트와 티벳어 두 언어로 쓰인 사본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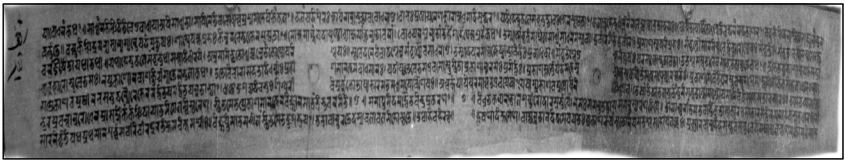
〈사진 4〉 중국에서 출판된 ‘Āmnāyamañjarī 사본의 복제품. 첫 번째 폴리오 뒷면(1v)

24) Bang, Jung Lan, “Selected chapters from the *Tantrasadbhāva*, -based on the tradition of 11th century Śaiva Sanskrit manuscripts in Nepal”, Dissertation(Hamburg University, 2018).

25) <https://www.acls.org/research/buddhistpostdoc.aspx?id=10704>(검색일자: 2019년 1월 19일)

26) 그녀는 2018년 11월 3일 인도철학회 47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불교 판뜨라 문헌에 나타난 힌두 판뜨라 의례의 도입과 재해석”를 시작으로 국내 활동에도 활발히 참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도 이미 출판되었다.

이 이외에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는 세 명의²⁷⁾ 한국학자가 산스크리트 사본을 기반으로 인도와 불교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이중 임주영은 ‘Sāṃkhyakārikā’에 대한 주석인 ‘Jayamaṅgalā’를 남인도 사본에 기반 하여 편집하고 있으며, 운산스님은 『유가사지론』 「문소성지」 중 ‘내명처’(adhyaṭmavidyā)에 대한 편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하리바드라(Haribhadra)의 『현관장엄론』에 대한 주석 중 한 장(chapter)에 대한 산스크리트 사본과 티벳역 비판교정과 영어번역으로 구성된 석사논문²⁸⁾을 제출한 혜용스님은 박사논문을 위해서 즈나나슈리미트라 의 ‘Sākārasiddhiśāstra’와 ‘Advaitabinduprakaraṇa’의 산스크리트 사본 대한 편집을 진행 중이다. 특히 그가 현재 편집하고 있는 ‘Sākārasiddhiśāstra’에 대한 비판 교정보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서, 박사논문에 앞서서 태국의 마히돌(Mahidol) 대학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사진 5〉 Jñānaśrīmitranibandhāvali 중 7번째 플리오 앞면
(6번째 줄 Advaitabinduprakaraṇa의 섹션 콜로폰 이후 Sākārasiddhiśāstra가 시작)

또한 산스크리트 뿐 아니라 간다리어 사본연구와 관련해서도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한재희와 이혜빈도 앞으로의 연구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²⁹⁾

27) 금강 스님도 “A Study On The Nine Similes Of The *Jñānālokālāṅkārasūtra*”, M.A. thesis(Hamburg University, 2016)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8) Lee, Jeongsoo (Bhikṣu Hejung), “The *Abhisamayālaṅkāraloka Prajñāpāramitāvyākhyā* of Haribhadra. The Sixteenth Chapter on Suchness: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and Tibetan Texts with Annotated Translation”, M.A. thesis (Hamburg University, 2016).

29) 이하의 두 논문에는 이름이 생략되었지만 이혜빈, 혹은 한재희와 이혜빈이 모두 공동저자로 언급된다. Han, Jahee, et. al., “A New Look at Zhī Qiān’s Translation of the *Aṣṭāśāśāhasrikā-prajñāpāramitā*”, *Journal of Bojo Jimul’s Thought* Vol.52(Seoul: Bojosasangyeonguwon, 2018), pp.83-125. 내용 자체는 흥미로으나, 제목부터 『팔천송반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을 *Aṣṭāśāśāhasrikā-prajñāpāramitā*(『만팔천송반야경』)으로 부르는 오류 등이 눈에 띈다 ; Braarvig, Jens, et. al., “A synonym lexicon similar to the *Amarakośa*”, *ARIRIA* Vol.XXI(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연구자 개인이 아닌 “『유가사지론』 『사소성지』의 비판적 편집과 한국어 번역 공동 프로젝트”³⁰⁾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안성두를 책임자로 원과 스님, 이영진, 정진일이 참여하여 「사소성지」의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티벳역을 비판적으로 편집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으로, 2018년 5월 “로버트 호 가족재단의 불교학 프로그램” 중 ‘비판적 편집과 학술번역에 대한 2018년 장려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³¹⁾ 이는 한국학계가 그 결과물을 세계학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정도로 성장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학계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학계에서 인도어 사본연구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들은 있지만 그들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후속 연구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본연구와 인도/불교 사상연구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키는 (소위 불교의 일상용어로 “분별하는”) 선입견도 커다란 장애요소일 것이다.

II.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한국에서 불교 사본을 연구한다면 누구나가 받는 질문이겠지만, 필자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은 “도대체 불교의 사상/철학과 사본/문헌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이다.

필자의 대답은 “불교의 사상은 문헌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새로운 사상은 문헌을 주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혹은 자신의 철학/믿음을 바탕으로 본래 의미와 달리 문헌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독법(讀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2018), pp.309-313.

30) 정확히는 “Collaborative Project for Critical Edition and an annotated Korean Translation of the *Cintāmayī Bhūmi*, the twelfth chapter of the Basic Section (*Maulī Bhūmi*) of the *Yogācārabhūmi*”이다.

31) <http://www.acls.org/research/buddhiscrit.aspx?id=13768> (검색일자: 2019년 1월 19일)

法)을 채용함으로써 발전해왔다. 사본을 다루는 것은 이러한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헌학의 가장 기초적 단계이다”였다.

이러한 대답은 대부분의 경우 질문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불교 사상이라는 큰 숲에서 나무만을, 더 나아가 나뭇잎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본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의 자위(自慰)는 될지언정 불교 사상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사본연구와 사상 연구를 당연히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산스크리트 사본을 편집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사본에서 적용되지 않은 연성(특히 모음연성, 비사르가 연성, 아바그라하)과 ‘sarvva’와 ‘dharma’ 등의 자음 중복(gemination)과³²⁾ ‘ūrdha’(ūrdhva Skt.) 등의 프라크리트/혼성범어의 읽기를 현대 학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거나, 짧은 선 혹은 빠침을 표시하지 않아서 장모음(a)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단모음(a)이 되는 등의 명백한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텍스트를 편집하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혹은 기존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여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본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드물지만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예들 중 두 경우를 『십지경』을 통해 살펴보자.

1. 『십지경론』의 “모든 현상은 열반과 같이 적정하다”: 필사자의 오류에서 시작한 창조적 해석

『십지경』 제 1지에서 보살이 일으키는 ‘위대한 열 가지 서원’(daśa mahā-prañidhanāni 十大願) 중 마지막 열 번째 서원에 대한 『십지경론』의 주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32)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이 현상에 관해서는 Suzuki, Yasuko, “On Characterizing Sanskrit Gemination”, *Journal of Inquiry and Research* Vol.102(Kansai Gaidai University, 2015), pp.1-18을 참조.

세 번째 행위/의무(=증득에 대한 교수(*adhigamāvavāda 證教授)의 행위를 하는 것)는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dharmanairātmya 法無我)는 행상(*ākāra)을 지닌] 하나의 현등각으로써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열반이다(*praktīnirvāṇatā)라고 믿는 것(한역: 본래 열반과 같이 깨끗하다고 증생으로 하여금 신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³³⁾

이 문장은 『십지경론』에 따르자면 『십지경』의 “하나의 현등각으로써 모든 다르마[一切法]가 열반이라고 확장하기/깨끗기 위하여(한역: 열반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완전히 알기 위하여)”³⁴⁾라는 문장을 주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현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콘도(kōndō)의 산스크리트 『십지경』 편집본(DBh^K)이 동일하게 “ekābhisambodhisarvadharmanirvāṇaspharaṇāya”³⁵⁾라고 읽기 때문에, ‘심오한’ 불교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꼼꼼히 문헌을 읽는 습관이 있다면 콘도의 각주에서 도쿄대학 도서관의 사본 중 하나가 ‘nirvāṇa’ 대신에 ‘nirmāṇa’라고 읽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도쿄대학이 제공하는 사본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또한 7세기 초의 산문 리센션 『십지경』 사본(A)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십지경』 10대원을 인용하는 『식샤삼우짜야』(Śikṣasamuccaya)의 사본(Ś: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³⁷⁾을 확인해보는다면, 오래된 사본은 ‘sarvadharmmadhātu’(A)와 ‘sarvasatvadhātu’(Ś)의 차이가 있지만, ‘nirvāṇa’ 대신 ‘nirmāṇa’[化作]로 읽고

33) 『십지경론』 티벳역 D.3993, 143b2 = Q.5494, 183b1-2: “las gsum pa ni gcig mngon du yang dag par rtogs pa | chos la bdag med pa'i rnam par chos thams cad rang bzhin gyis mya ngan las 'das par mos pa yin par rig par bya'o ||”; 『十地經論』卷3(『大正藏』26, pp.140下20-22: “第三業者，以一三菩提觀法無我一切法性淨涅槃，令眾生信解故。”

34) 『십지경론』 티벳역 D.3993, 143a1-2 = Q.5494, 182b7 “gcig mngon du yang dag par rtogs pas chos thams cad mya ngan las 'das pas rgyas par bya ba'i phyir dang ||”; 『十地經論』卷3(『大正藏』26, 140中 25-26): “以一三菩提遍知一切法如涅槃性故”

35) DBh^K 22.01

36) DBh^K 22n4: “mā T(akakusu MS. of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 현재 Tokyo University Library No.167, 11r2: ekābhisambodhisarvadharmanirvāṇaspharaṇāya”

37) Śikṣasamuccaya Cambridge MS Add.1478.

(Kj·Bbh·Śdh)은 “모든 다르마/현상[一切法]=열반”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십지경』의 모든 자료 중 가장 빠른, 3세기 말의 다르마락사(竺法護)의 “하나의 붓다의 깨달음(佛道)³⁹⁾ 성취하여 법계의 모든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라는 번역을 참조했을 때 ‘nirvāṇa’보다 ‘nirmāṇa’에 무게를 좀 더 실을 수 있다. 더욱이, 본래 프라크리티(Prakrit)로 전승되었을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바꾸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⁴⁰⁾ ‘nirmāṇa’와 ‘nirvāṇa’의 혼란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⁴¹⁾ 현상임을 안다면, 이 문장은 A사본과 같이 “[다만] 하나의 현등각을 가지고 모든 법계를 [마법적으로] 만들어 확장시키기/꿰뚫기 위하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세기 꾸마라지바로부터 출발한 ‘nirmāṇa’ → ‘nirvāṇa’는 ①아마도 잘못된 산스크리트화로부터 기인한 필사자의 오류로부터 출발하여, ②‘nirmāṇa’가 ‘마법적 창조’(magical creation)의 의미로 『십지경』에서 ‘pratibhāsa[影像]·메아리(pratīśrutkā)·물에 비친 달(udakacandra)·거울에 비친 영상(pratibimba)과 동일하게 ‘실재하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⁴²⁾ ‘nirvāṇa’를 선호하게 되고, ③『십지경론』의 저자는 그가 ‘abhisambodhi’(現等覺)의 내용으로 정의한 ‘법무아’(法無我)를 모든 현상에 적용하여 “모든 현상은 열반[과 같이] 적정(寂靜)]하다”는 철학/사상적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39) 다르마락사의 번역에서 ‘불도’가 ‘붓다의 길’(Buddha-Path)이외에도 ‘붓다의 깨달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Karashima, Seishi. *A Glossary of Dahrmarakṣa's translation of the Lotus Sutra* (正法華經詞典)(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Soka University, 1998), p.144, “佛道(fó dào)”를 참조할 것.

40) 가라시마가 ‘svara’(소리)와 ‘smara’(사유행위, 사유, 기억)가 모두 프라크리티에서 ‘svara’의 형태로 바뀐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세음보살이라는 “Avalokitasvara”가 “Avalokitasmara”(*Avalokitaśpara 간다리어), “One who Observes Thinking”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Karashima, Seishi, “On Avalokitesvara and Avalokiteśvara”, *ARIRIAB XX*(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Soka University, 2017), pp.152-155.

41) Lee, Youngjin, *op. cit.*, p.126.05-06의 “*nirmāṇavarāṇapratipakṣārthaṃ nirmāṇasaṃkleśapratipakṣārthaṃ*”는 텍스트가 근거한 양 사본 모두 ‘nirvāṇa’로 읽고 있다(Critical Apparatus B 참조할 것.) 그렇지만 티벳역과 이전에 동일한 구문에서 양 사본이 ‘nirmāṇa’로 읽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nirmāṇa’로 수정하였다.

42) BHSD p.302의 ‘nirmāṇa’항목 참조.

2. 육상(六相)은 『십지경』으로부터 유래한 경전을 해석하는 오래된 전통인가?⁴³⁾

중국 화엄교학의 주춧돌인 ‘육상원융설’(六相圓融說)의 ‘육상’은 『십지경론』에서 처음으로 ‘경전의 문구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채용되었고, 『십지경』 10대원 중 네 번째 대원에 경전적 근거가 있다. 이 ‘육상’이 언급되는 네 번째 대원은 이 서원(誓願)을 일으키는 목적이 하나의 긴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의 에디션과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arvabodhisattvacaryāvīpulamahadgatāpramāṇāsambhinnasarvapāramitāsaṃgrhītasarvabhūmiparīśodha-nasāṃgopāṃganirhārasalakṣaṇavilakṣaṇavivartasamvartasarvabodhisattvacaryābhūtayathāvadbhūmi-pathopadeśapāramitāparikarmāvavādānuśāsanyanupradānopastabdhadhattotpādābhinirhāya⁴⁴⁾

[번역:] 모든 보살행이 넓고, 크고, 무량하고, 구별이 없고, 모든 바라밀에 포함되고, 모든 지(地)를 청정하게 하여, 부분(aṅga 總相)과 세분(upāṅga 別相)을 가지는 것으로 완성하고, 공통의 특징(salakṣaṇa 同相)과 다른 특징(vilakṣaṇa 異相) 및 생성(vivarta 成相)과 파괴(saṃvarta 壞相)를 갖춘 모든 보살행이고, 있는 그대로의 지(地)의 길에 대한 교설과 바라밀의 정화에 관한 교계·교시를 내리는 데 힘입은 발심을 완성하기 위해서⁴⁵⁾

이 복합어에서 문제는 위에서 밑줄로 표시한 “sāṃgopāṃganirhāra”와 “salakṣaṇa…saṃvarta”의 소유복합어가 무엇을 수식하는가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주로 『십지경론』의 주석에 입각해, 이 육상의 복합어를 “보살행 혹은 그 교시(敎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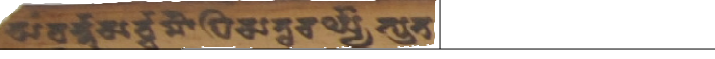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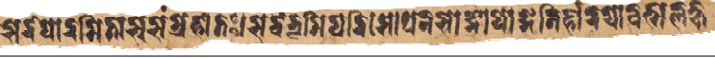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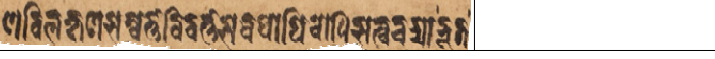
43) 이 부분은 이영진, 『『십지경』(Daśabhūmikasūtra)의 제사대원(第四大願) 재고(再考): 자리에서 이타로, 그리고 지(地)의 청정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불교학교』 83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8), pp.39-60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44) 金京南, 『『十地經論』研究—六相および唯心說を中心として—』, 博士学位論文(東京大学, 2010), p.15 ; 이영진, 앞의 논문, p.42로부터 재인용.

45) 이영진, 앞의 논문, pp.42-43: 이 번역은 金京南의 번역(각주 9)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upadeśa)의 형용구”, 혹은 “보살행의 교수교계(avavādānuśāsānī)의 형용구”로 보거나, 더 나아가 “sarvabodhisattvacaryā(모든 보살행)인 bhūmipatha(地의 道)를 (bhūta-)yathāvad(여실하게) upadeśa(敎說敎示)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형식 혹은 방식” 등으로 제시하고, “sarvabodhisattvacaryābhūta” 혹은 그 이후의 단어와 연결하고 있다.⁴⁶⁾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 사본과 『식샤삼우짜야』의 사본을 참조하면, 비록 이 읽기를 채택하여 구문을 교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본 학계와는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A	8r7	
		<i>sa rvva bhū mi pa ri śo dha naṃ sām go pām ga ni r.ā ... //</i>
ś	8v1	
		<i>saṃ va rṭta sa rvva bo dhi sa tva ca rryā bhū ta</i>
ś	129r6	
		<i>sa rva pā ra mi tā su saṃ gra hī taḥ sa rva bhū mi pa ri śo dha na sā ṅgo pā ṅga ni rhā ra yā va tsa la kṣa</i>
ś	129v1	
		<i>na vi la kṣa ṇa sa mva rṭta vi va rṭta sa rva thā pi bo dhi satva ca rryā bhū ta '</i>

〈사진 7〉 A 사본과 ś 사본-2

비록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A 사본의 “pariśodham sāmṅopāmṅanir(h)ā(ra) ... //”와 ś 사본의 “pāramitāsu saṃgrahītaḥ | sarvabhūmipariśodhanasāṅṅopāṅṅanirhārayāvat salakṣaṇa”를 함께 참조한다면, ‘육상’의 소유복합어는 “sarvabodhisattvacaryābhūta” 혹은 그 이후의 요소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sarvabhūmipariśodhana”(모든 단계[地]의 청정)라는 앞 구성요소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46) 이영진, 앞의 논문, p.41, n.4.

필자는 이러한 사본의 제안을 염두에 두고 제 4대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산문 두 단락을 A사본을 통해서 찾았다. 한 단락에는 육상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거나 추론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한 후 “sarvabodhisattvabhūmipariśodhanatayā”([보살이] 보살의 모든 단계를 청정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부가하는 것이 보이고, 이 모든 과정에 능숙해진 보살을 “bhūmisākārābhīnirhāraśūla”(행상을 가지고 단계들을 실현하는데 능숙한 자)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⁷⁾ 즉, 이 단락에 따르면 ‘육상’의 소유복합어는 A 사본과 Ś 사본이 제안하듯이 ‘sarvabhūmipariśodhana’를 수식해 주는 것이다.

필자는 또한 “sarvabodhisattvacaryābhūta…”로 시작하는 복합어 후반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진 단락을 찾아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⁴⁸⁾ 그 결과 제4대원의 발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서술한 복합어를 “sarvabodhisattvacaryā”(모든 보살행)과 “sarvabodhisattvacaryābhūta”(모든 보살행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동등한 가치를 지니는)으로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광대하고 커다랗고 무량하고 구분할 수 없고 모든 바라밀로 열거된 **모든 보살행**, [즉] [각 단계의] 부분과 세분을 실현(=완성)함과 [단계들의] 공통된 특징, 다른 특징, [각 단계]의 시작과 끝을 갖춘 **모든 단계의 청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리의 보살행인 모든 단계의 청정이라는] **모든 보살행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붓다와 보살들이] 단계들로 나아가는 길 (bhūmipatha)을 여실하게 보여주신 [교수교계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단계들에 대한 특별한 준비 즉] 바라밀들을 [미리 능숙하게 하는 특별한] 준비에 대한 교수교계를 내려주시는 것에 기반 하는, [중생들의 무리를 일체지로 이끌겠다는] **발심의 실현을 위하여**⁴⁹⁾

이 경우 ‘자리(自利)의 보살행’(=10지의 청정→육상) > ‘이타(利他)의 보살행’(=발심의 실현→교수교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육상’은 『십지경』에서

47) 이영진, 앞의 논문, pp.48-50.

48) 이영진, 앞의 논문, pp.51-53

49) 이는 이영진, 앞의 논문, p.50과 p.53의 번역을 문맥에 맞게 조금 수정한 것이다.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보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自利] 10단계 [十地]의 수행을 실천하는데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다. 『십지경론』의 저자 세친이 그의 주석에서 해석학적 전통과 무관했던 ‘육상’을 경전 해석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것은 자신의 철학/믿음을 바탕으로 본래 의미와 달리 문헌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독법(讀法)의 전형적인 예로 보인다.⁵⁰⁾

앞서 설명한 두 예와 같이 ‘nirvāṇa’와 ‘nirmāṇa’의 차이 그리고 ‘parisōdhana’와 ‘parisōdhanam’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즉 v/m과 x/m)는 때때로 사상이라는 커다란 물줄기와 만나 큰 차이를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인내심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일 것이다.

III. 이제는 시스템으로

그렇다면 한국학계가 인도어 사본연구를 인도/불교학의 한 분야로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인도어 사본연구를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먼저, 인도/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혹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문자와 사본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몇몇 대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스크리트, 팔리어, 티벳어 수업에 포함되거나, 예를 들면 “남아시아의 문자와 서사(書寫)전통”이라는 독립된 강좌로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인도/불교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석·박사 과정의 문헌 강독 시에 가능하다면 사본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대학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산스크리트 텍스트 강독의 경우, 대부분 편집본을 사용한다. 다수의 경우, 편집본이 근거한 사본은 적어도 일부가 무료로 공개되거나 적절

50)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이영진, 앞의 논문, pp.53-55.

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혹은 운이 좋다면 출판된 편집본이 사용하지 않은, 더 좋은 읽기를 가지고 있는 사본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본을 참조하는 수업 방식은 기존 편집을 교정하거나 편집본과는 다른 읽기를 택함으로써 즉, 다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아직 편집 출판되지 않은 사본만이 가치가 있다”는 선입견을 버릴 수 있게 할 것이다.⁵¹⁾ 물론 연구자가 현재 편집하고 있는 사본을 활용해 강의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현재 사본을 연구하고 있는 후속세대에게 적절한 연구 환경과 자리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식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특히 현재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연구자가 의사가 있다면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인도어 사본만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연구 범위가 협소하다면, 인도어 이외에 한문·티벳어·위구르어·몽골어·만주어 등 아시아 기록문화유산 전반을 다루는 장기 프로젝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국내의 불교학에 있어서 소위 메이저 대학이 ‘인도어 사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스크리트에 비해 부족하거나 전무한 팔리어, 간다리어 등의 프라크리트 사본 연구자도 배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자를 찾지 못한다면, 외국의 숙련된 연구자를 초빙하는 것도 경제적이면서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연구자도 국내외의 프로젝트, 특히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울너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가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화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앞서

51) 필자는 안성두 교수님이 201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업에서 『대승장엄경론』 6장 *Tattvārthādhikāra*와 11장 *Dharmaparyeṣṭyādhikāra*를 강독할 때 참여한 바가 있다. 『대승장엄경론』은 레비(Sylvain Lévi)의 뛰어난 편집본과 이를 나가오 가진(長尾雅人)이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다른 사본들에 의거해 제시한 수정본이 있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사본들을 참조하여 여전히 이들의 읽기를 교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읽기를 채택할 수 있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사본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무용(無用)하다는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약호

- ARIRIA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 BHSD *Buddhist Hybrid Sanskrit Grammar and Dictionary Volume II: Dictionary*, ed., by Franklin Edgerton, New Haven, 1953.
- CRBS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 DBh^K *Daśabhūmīśvaro nāma Mahāyānasūtram*, ed., by Ryūkō Kondō, Tokyo: Daijō Bukkyō Ken'yōkai, 1936(repr. Kyoto: Rinsen Book Co., 1983).
- IJBTC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 GCBS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 JIBS *The 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2. 2차자료

- *A Glossary of Dharmarakṣa's translation of the Lotus Sutra* (正法華經詞典), ed. by Seishi Karashima,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1998.
- Ahn, Sung-Doo, *Die Lehre von den Kleśas in der Yogācārabhūmi*,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3.
- Bang, Jung Lan, “Selected chapters from the *Tantrasadbhāva*, —based on the tradition of 11th century Śaiva Sanskrit manuscripts in Nepal”, Dissertation, Hamburg University, 2018.
- Braarvig, Jens, et. al., “A synonym lexicon similar to the *Amarakośa*”, *ARIRIA* Vol.XXI, Tokyo: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2018, pp.309-313.
- Choi, Gi-pyo et al., *A Handlist of Sanskrit Manuscripts in the Punjab University Library: Vol. 1 [Veda, Vedalaṅkāṣa, Upaniṣad, Śrauta, Gṛhya, Dharma]*, Nonsan: GCBS, 2011.
- Choi, Jinkyung, “A Note on a *Samyuktāgama* Quotation in the *Viniścayasamgrahaṇī* Fragments from the St. Petersburg Collection”, *Saddharmāmṛtam: Festschrift für Jens-Uwe Hartmann zum 65. Geburtstag*, ed. by Oliver von Crieger, et al., Wien, 2018,

pp.9-16.

- _____, “A Brief Survey on the Sanskrit Fragments of the *Viniścayasamgrahaṇī*”, *INDIAN LOGIC: In Honour of Professor Matsuda Kazunobu on His Sixtieth Birthday*, Tokyo: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dian Logic, 2017, pp.304-318.
- _____, “A Preliminary Survey on a Sanskrit Manuscript Folio of an Unknown Commentary to the *Viniścayasamgrahaṇī* from Tibet”, *JIBS* Vol.65, No.3, Tokyo: Japanese Association of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t Studies, 2017, pp.183-190.
- _____, “The *Tridaṇḍī-sūtra* and the two *Lohitya-sūtra* in the Gilgit *Dīrghāgama* manuscript”, *CRBS* Vol.12, Nonsan: GCBS, 2012, pp.9-36.
- Choi, Jong-Nam, *Die dreifache Schulung (Śikṣā) im frühen Yogācāra: Der 7. Band des Hsien-yang shēng-chiao lun*,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11.
- Chung, Jin-il, “*Pratītyasamutpādavibhaṅga-sūtra* from Nālandā: A New Edition of the Brick Inscription B”, *IJBTC* Vol.27, no.1, Seoul: Academy of Buddhist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2017, pp.107-136.
- _____, “Sanskrit Fragments Corresponding to Chapter I.8 of the *Jñānaprasthāna*”, *IJBTC* Vol.26, no.2, Seoul: Academy of Buddhist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2016, pp.187-227.
- _____, “*Puṇya-sūtra* of the *Ekottarikāgama* in Comparison with the *Fu-jing* 福經 of the Chinese *Madhyamāgama*”, *CRBS* Vol.16, Nonsan: GCBS, 2014, pp. 92-121.
- _____, “Vinaya Elements in Āgama Texts as a Criterion of the School Affiliation —Taking the Six *vivādamūlas* as an Example—”, *CRBS* Vol.14, Nonsan: GCBS, 2013, pp.9-41.
- _____, *Handbuch für die buddhistische Mönchsordination bei den Mūlasarvāstivādīn*, Gimpo: Institute for Buddhist Scriptures in Korean Translation, 2011.
- Chung, Jin-il & Fukita, Takamichi, *A survey of the Sanskrit fragments corresponding to the Chinese Madhyamāgama : including references to Sanskrit parallels, citations, numerical categories of doctrinal concepts, and stock phrases*, Tokyo: Sankibo Press, 2011.
- _____, *Sanskrit fragments of the Pañcavastuka*, Tokyo: Sankibo Press, 2017.
- Han, Jaehee, et. al., “A New Look at Zhī Qiān's Translation of the *Aṣṭādaś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Vol.52, Seoul: Bojosasangyeonguwon, 2018, pp.83-125.

- Kang, Sung Yong, “The New Critical Edition of the *Nyāyabhāṣya* and Its Meaning for the Research in Early Buddhist Debate Tradition-The Case of *jāti* and 相應”, *CRBS* Vol.3, Nonsan: GCBS, 2008, pp.39-85.
- Karashima, Seishi, et al., *Mahāvāna Texts: Prajñāpāramitā Texts* (1), New Delhi & Tokyo: The National Archives of India &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2016.
- Kim, Jinah, *Receptacle of the Sacred: Illustrated Manuscripts and the Buddhist book cult in South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Lee, Jong Cheol,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Chapter IX: Ātmavādapratīṣedha*,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11, Tokyo: Sankibo Press, 2005.
- Lee, Yong-Hyun, “Re-editing the *Niṣpannāyogāvalī*: Some Textual Problems”, *Tantric Studies* Vol.1, Hamburg: Centre for Tantric Studies, 2008, pp. 181-192.
- _____, “The *Kalacakramandala* in Abhayakaragupta's *Niṣpannayogavali*: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Text and an English Transl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49,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2007, pp.51-90.
- _____, *The Niṣpannayogāvalī by Abhayākaragupta: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Sanskrit Text: Revised Edition*, Seoul: Baegun Press, 2004.
- Lee, Youngjin,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gotra* by Ārya-Vimuktiṣeṇa: Focusing on the phrase “*ṣaṇṇāṃ pāramitānāṃ dharmatālakṣaṇo viśeṣaḥ*”, *ARIRIA* Vol.XXI, Tokyo: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2018, pp.259-272.
- _____, *Critical Edition of the First Abhisamaya of the Commentary on the Prajñāpāramitā Sūtra in 25,000 Lines by Ārya-Vimuktiṣeṇa, based on Two Sanskrit Manuscripts preserved in Nepal and Tibet*, Napoli: Università degli Studi di Napoli “L’Orientale”, 2017.
- _____, “On Two Sanskrit Manuscripts of Ārya-Vimuktiṣeṇa's Commentary on the *Abhisamayālaṅkāra*”, *Śrāvakabhūmi and Buddhist Manuscripts*, ed. by Seongcheol Kim and Jundo Nagashima, Tokyo: Nombro, 2017, pp.209-233.

- _____, “Reconstruction of damaged parts of a Sanskrit Manuscript: focusing on the first *Abhisamayā* of *Abhisamayālaṅkāravivṛti* by Haribhadr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Gimpo: Korean Society For Buddhist Studies, 2013, pp.7-62.
- _____, “A critical edition and its translation of *Abhisamayālaṅkāra* by Haribhadra(I)—Up to *Abhisamayālaṅkāra* verses 1 and 2 with an appendix of corresponding passages of *Abhisamayālaṅkāravivṛti*”, *CRBS* Vol.12, Nonsan: GCBS, 2012, pp.169-212.
- 金京南, 『『十地經論』研究—六相および唯心説を中心として—』, 博士学位論文, 東京大学, 2010.
- 강대공(법진 스님), 「동남아시아의 팔리어(Pāli) 문자와 불교사본」, 『인도철학』 제42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4, pp.357-380.
- 강성용, 「고전텍스트의 DNA를 묻는다: 고전텍스트의 문헌전승 계통도 분석에서 계통 발생 분석방법(phylogenetical analysis)의 적용과 모색」, 『인문언어』 제15권 3호, 서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3, pp.77-122.
- 박영길, 『하타요가의 철학과 수행론』, 서울: 씨아이알, 2013.
- _____, 『『하타요가쁘라디빠까』(Haṭhayogapradīpikā) 필사본의 명칭—필사본과 카탈록 그리고 표준적 명칭에 대하여—』, 『불교학리뷰』 6호, 논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9.
- 방정란, 「불교 판뜨라 문헌이 전하는 사이바(Saiva) 의례의 도입과 해석」, 『인도철학』 제54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8, pp.35-63.
- _____,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인도학, 티벳학 사본 연구 현황 소개」, 『불교학리뷰』 14권, 논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13, pp.107-122.
- 배경아, 「한국·동아시아 불교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불교학의 연구방법론: 불교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76, 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pp.101-126.
- 심재관, 「네팔 후기 리차비(Late Licchavi) 문자 형태에 대한 연구—7~9세기의 비문과 필사본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50집(서울: 인도철학회, 2017), pp.5-48.
- _____, 『인도 사본학 개론』, 서울: 씨아이알, 2013.
- 안성두, 「울너사본의 현황조사와 샘플링 작업」, 『인도철학』 제25집, 서울: 인도철학회, 2008, pp.175-214.
- 우제선, 『요가행자의 증지: Yogipratyakṣa』, 서울: 무우수, 2006.

- 이영진, 『『십지경』(Daśabhūmikasūtra)의 제사대원(第四大願) 재고(再考): 자리에서 이 타로, 그리고 지(地)의 청정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불교학』 83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8, pp.39-60.
- _____, 『『십지경』 「서품」의 계승: 7세기 산스크리트 사본을 통한 교정과 제안』, 『인도철학』 제50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7, pp.275-302.
- _____, 「새로 확인된 『현관장엄론』 계송사본과 아리아 비뭉머세나의 『현관장엄론』 주석서 콜로폰』, 『불교학연구』 제43호, 김포: 불교학연구회, 2015, pp.217-243.
- _____,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현전지」(II)』, 『불교연구』 41집,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4, pp.53-105.
- _____,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현전지」(I)』, 『불교학연구』 제39호, 김포: 불교학연구회, 2014, pp.7-55.
- _____,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인도철학』 제42집(서울: 인도철학회, 2014, pp. 319-356.
- _____, 「법에 대한 갈애(Dharmatrṣṇā): 보살은 집착하는가(abhinivīśate), 집착하지 않는가(nābhiniivīśate)?」, 『인도철학』 제36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2, pp.211-253.
- 이용현, 『『니쉬빠나요가발리』의 싹쓰리프 텍스트에 관한 고찰』, 『인도연구』 제12권 2호, 아산: 한국인도학회, 2007, pp.225-251.
- 정진일, 「阿含 經典에 보이는 部派 所屬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律的 요소: 六諍本을 一例로」, 『인도철학』 제34집(서울: 인도철학회, 2012), pp.165-203.
- _____, 「한역 중아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잔엽들—조사 현황과 전망—」, 『인도철학』 제30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0, pp.5-18
- _____, 「求那跋陀羅譯『雜阿含經』에 보이는 번역상의 문제점—大空法經을 일례로—」, 『불교학연구』 제18호, 김포: 불교학연구, 2007, pp.261-293.
- _____, 「에른스트 빈디쉬, 『산스크리트文獻學 및 印度考古學史』」, 『가산학보』 12호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4), pp.193-201.
- 최종남, 『『유가사지론』 「성문지」 산스크리트어 원전연구: śīlasaṃvara (戒律儀)』, 『대각사상』 제4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1, pp.379-404.

Current Situation and Assignment of Studies on Indic Manuscripts in Korea

Lee, Youngjin

HK Professor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Geumgang Univ.

The studies on Indic manuscripts that started with finding Sanskrit manuscripts in Kathmandu, Nepal in the 1820s has begun its second golden age by working on the Gāndhārī manuscripts and Sanskrit manuscripts preserved in Tibet. However, the situation in Korea is still in the earliest stage where the seeds, which were planted by scholars who had studied abroad in the early 2000s, are being sprouted.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works that have been done by Korean scholars for the last twenty years and introduce ongoing researches of the next generation.

In the first chapter, I divided the scholars into two groups and introduce their works: first generation whose primary duty was to introduce the Indic manuscript study to Korea and the second generation that mainly consists of manuscript specialists.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shown a couple of cases from my studies on the *Daśabhūmikasūtra* (十地經 *shidijing*), in order to break down or reduce the prejudice that the manuscript study and the studies on Buddhism are entirely different and irrelevant.

In the third chapter, I have made some suggestions on how to establish the Indic manuscript study as a discipline in the field of Buddhist Studies or Indian Philosophy in Korea. At present, the most urgent matter is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manuscript specialists should continue to research their works and

educate the next generation by hiring them.

Keywords

Indic language, Sanskrit, Manuscript, Current Situ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script study and philosophy, Discipline, Systematization

2019년 01월 28일 투고

2019년 03월 05일 심사완료

2019년 03월 20일 게재확정

